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김경민* · 조은영* · 송지은**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데이터 중에서 초4부터 고1까지 7년에 걸쳐 수집된 자료(총 2,378명)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변화계적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에서의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은 휴대전화 의존의 초기치뿐만 아니라 변화율과 이차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신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녀가 인식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았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휴대전화 의존도 증가폭은 크지만 변화 속도는 점차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활동을 통제한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았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증가폭은 작지만 변화 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단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여, 이는 향후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모 교육에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양육방식, 감독, 과잉간섭, 휴대전화 의존도, 잠재성장모형

* 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교신저자, naivety1@korea.ac.kr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휴대전화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필수품이다. 2017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은 100명당 120개로 나타났고(미래창조과학부, 2017), 스마트폰 보급률은 91.0%로 세계 3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KT 경제경영연구소, 2016). 이러한 휴대전화의 대중화와 더불어 휴대전화 보급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96.7%로 나타나 현재 대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5).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성과 편리성을 앞세워 삶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는 정보검색과 오락의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Oksman & Turtiainen, 2004).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은 수면 장애와 시력저하, 손목 터널증후군 등의 신체 질환을 유발하고, 나아가 불안 및 강박증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김경은 외, 2013; 박민수, 2013; 손은경, 최은영, 공마리아, 2016; Maisch, 2003; Sarwar & Soomro, 2013). 이렇듯 휴대전화의 여러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게 되면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과 몰입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전화는 현대사회의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만 휴대전화사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휴대전화의 부정적 측면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는 아직 신체, 심리,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로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매체에 대한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Gupta & Derevensky, 2000; Shaffer & Bethune, 2000; Young, 1996). 이러한 발달 시기상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아동·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고 지도하는 부모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부모는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며, 자녀에게 사회적·정서적 기반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개인의 발달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 행동은 개인과 가정, 학교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유발되는 부적응의 결과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허은경, 이경님, 2006), 청소년을 둘러싼 체계 간 환경적 요인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부모의 영향력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매체를 활용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부모가 롤 모델이 되어 줄 수 있으며,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제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긍정적·부정적 태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양육태도에는 애정, 수용, 감독 등이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긍정적 양육방식을 보이는 경우,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과 중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대명, 조준수, 2015; 노충래, 김소연, 2016; 임훈정, 2015). 반면,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거부적, 방임적, 지시적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그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의존하거나 심각한 경우 중독될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년, 최홍일, 2013; 노충래, 김소연, 2016; 박정은, 2001; Blaszczyński & Nower, 2002).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중에서도 감독은 부모가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점검하고,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안혜원, 이재연, 2009).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는 또래와의 관계가 보다 중요해져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학업을 이유로 집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이 더욱 중요해진다(고정자, 2005).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한 감독의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중에서도

과잉간섭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양육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조인호, 2012).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성공과 부모 자신의 성공을 동일시하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도 있고, 입시위주의 경쟁 속에서 교육열이 과도하게 높은 경향도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설정한 삶의 계획과 방식을 일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과잉간섭의 양육태도가 쉽게 관찰된다. 부모의 과잉간섭 양육태도는 아동과 청소년이 현실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으로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나뉘어진다. 이에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휴대전화 의존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부모에서부터 또래, 학교 등 점차 사회화의 범위가 확장되어가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 및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사회화 수단 중 하나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모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다.

특정 시기의 경험이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나타나기도 하나,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Bronfenbrenner, 1992; Vandell, Belsky, Burchinal, Steinberg & Vandergrift, 2010).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이는 내·외적 태도와 행동들은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그 영향력이 크며, 그 영향력은 자녀가 어릴수록 강력하게 나타난다. 부모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부모가 외적으로 보이는 양육행동 역시 자녀의 발달에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동기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휴대전화 의존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 자녀의 경우에는 교사 및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모가 설정한 규칙이나 가치관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게 된다(정옥분, 2014). 이에 비해 아동은 청소년보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사회·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아동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은 그 이후의 발달시기에도 이어지며(최선남, 최외선, 1995), 휴대전화 의존과 같이 특정 매체 사용에 대한 습관은 어린 시절 부모가 정해주는 기준에 의해 통제되어 형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지각한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아동기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아동·청소년기 동안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양상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궤적은 어떠하며, 이 변화 궤적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기 부모의 감독 및 과잉간섭은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과사용에 대한 연구는 휴대전화 중독 또는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개념 정리를 위해서는 이들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은 이용자들의 상태에 주목하여, 휴대전화 의존을 휴대전화에 몰입하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여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차은진, 김경호, 2015). 반면, 휴대전화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은 중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주목하여, 휴대전화 중독을 지속적 몰입, 강박증상, 생활장애, 통제상실을 보이는 중독증상으로 정의한다(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본 연구에서는 엄밀하게는 중독이라는 말에 병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대전화 중독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인 진단 기준 없이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김소영, 홍세희, 2014), 휴대전화 중독보다는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매체체계 의존이론(Ball-Rokeach & DeFleur, 1976)이 있다. 매체체계 의존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Ball-Rokeach & DeFleur, 1976). 그리고 매체가 지속적으로 유용하다면 개인은 특정 매체와 비교적 안정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어떤 매체에 대한 개인의 의존이 심화될수록 그 매체는 특정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Kim, Jung, Cohen & Ball-Rokeach, 2004; Tai & Sun, 2007). 이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적용해 본다면, 청소년이 개인적 스트레스 해소나 대인관계 형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고, 휴대전화로부터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서 휴대전화 의존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소영, 홍세희, 2014; 황고운, 조예진, 현명호, 2016).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아동기에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소유하게 되면서 자아통제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로 휴대전화라는 새로운 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차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정 혹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증가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고, 현재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에서의 어려움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와 같은 특정 시기의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2.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은 자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부모의 감독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양육방식인 반면, 부모의 과잉간섭

은 부정적 양육방식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모의 감독은 자녀가 누구와,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등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관심을 표현하는 태도이다(허묘연, 2000). 이는 자녀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허묘연, 2000).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두며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바람직한 범위에서 자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

부모의 과잉간섭이란 부모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양육방식으로서, 성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이다(허묘연, 2000). 이러한 과잉간섭은 과잉통제 및 과잉보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과잉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높은 수준의 감독과 간섭을 행하며 아동의 독립적인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행동을 의미한다(Bögels & Brechman-Toussaint, 2006). 그리고 과잉보호는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도움을 주며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자녀가 부정적인 경험을 겪지 않도록 통제하고 관여하는 것이다(Parker, 1983; Symonds, 1939). 이러한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의지나 생각보다는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고 지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발달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정리하면, 부모의 감독은 합리적인 규칙을 세워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녀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허용하지만,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양육방식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관심이지만, 지각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자녀의 다방면의 발달에 있어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3.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은 휴대전화라는 기기의 사용에 대한 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습관은 아동기에 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다수 검증되었다.

먼저,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며 학교부적응이나 청소년비행의 초기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제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5; 서정민, 2013). 또한 아동이 부모의 감독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향후 청소년기의 위험행동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Li, Stanton & Feigelman, 2000). 이를 미루어 보아,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하는 양육방식을 보인다면 자녀의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도 낮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휴대전화 중독에는 친구요인이나 심리적 요인보다 부모 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이어리, 이강이, 2012).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고 긍정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일수록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았는데(김지혜, 2014; 이어리, 이강이, 2012;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할수록 자녀의 중독수준은 낮았다(구현영, 김은정, 2015). 또한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으며, 휴대전화의 사용 용도에 있어서도 오락적 용도보다는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김지혜, 2012; 박주나, 전종설, 2013; 임양미, 2014).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의 감독 수준이 낮을수록 중학교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았고(김소영, 홍세희, 2014).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도피처로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수정, 2013; 이어리, 이강이, 2012; 이정민, 정혜원, 2016). 그리고 부모의 감독 수준은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이나 또래애착 등을 매개로 영향을 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박주나, 전종설, 2013; 장석진 외, 2011)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부모의 과잉간섭은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이는 자녀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충래, 김소연, 2016; Schaefer, 1965). 자녀의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동·청소년기 자녀와 갈등을 야기하여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기 쉽다. 부모 입장에서는 간섭을 자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간섭 때문에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억압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의도일지라

도 자녀의 일에 대한 참견과 간섭이 지나칠 경우, 이는 왜곡된 애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과잉 간섭하는 양육방식을 사용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해 혹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족과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며, 심지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한다(Nelsen & Erwin, 2000).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자녀의 자율성 및 독립심 발달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자녀의 의존적인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Doh & Falbo, 1999), 이러한 의존적 성격은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맥락에서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휴대전화라는 심리적, 정서적 도피처를 찾아 그곳에서 만족감과 지지를 얻게 만들며, 그 때문에 자녀는 휴대전화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장미경, 이은경, 2007). 기존 연구들에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아동 및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박주나, 전종철, 2013; 배승리, 2016; 최태산, 김자경, 2016), 부모가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지닐 경우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병년, 최홍일, 2013; 류미숙, 권미경, 2011; 이ერი, 이강이, 2012).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파악하였고, 특정 시기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관계를 한 시점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파악하여, 아동기 부모양육방식이 장기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종단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자녀에 대한 관심이라는 맥락 하에 보이는 두 가지 양육태도를 함께 살펴보다 이들을 비교한 연구도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기의 경우 청소년기보다는 부모의 지도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아동기에 형성된 성향이나 행동적 특성은 그 이후의 발달시기에도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아동기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라는 양육방식이 아동·청소년기에 이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휴대전화 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데이터 중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 수집된 초4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0년도 1차 연구 당시 초4 패널 자료의 조사대상자수는 총 2,378명이었으며, 이후 조사대상자수가 점차 줄어들어 2016년도 7차 연구에서는 총 1,979명(83.2%)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초4 패널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동의 휴대전화 보유가 보편화되는 시점부터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휴대전화 사용 패턴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휴대전화 보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아동·청소년기는 부모에 의해 휴대전화 사용이 규제되고 이러한 감독과 통제 하에서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중 부모의 감독 및 과잉간섭과 휴대전화 의존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은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척도 중 일부 문항이다.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은 각각 4문항으로 총 8문항이며,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이시형 외(2002)의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척도 중 휴대전화 의존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총 7문항이며,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감독 및 과잉간섭과 휴대전화 의존도 문항을 역산하여 사용하였고, 모든 변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부모의 감독 .70, 부모의 과잉간섭 .63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 의존도의 Cronbach α 는 측정 시기에 따라 .84~.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 및 과잉간섭, 휴대전화 의존도 각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변인들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산출한 뒤, 각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 의존의 변화 양상과 이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7개의 시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무변화 모델과 선형 모델, 비선형 모델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구조모형 분석 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계수를 추정하고, 패널자료의 특성상 결측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분석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측치리는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모형이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 CFI,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에는 SPSS 22.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1

부모의 감독 및 과잉간섭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i>N</i>	<i>M</i>	<i>SD</i>	왜도	첨도
부모 양육방식	감독 1차 (초4)	2,376	3.36	.63	-1.07	1.05
	과잉간섭 1차 (초4)	2,377	2.40	.68	.13	-.39
휴대전화 의존도	1차 (초4)	1,609	1.63	.56	1.15	1.37
	2차 (초5)	1,892	1.79	.65	.95	.74
	3차 (초6)	1,995	2.05	.71	.50	-.17
	4차 (중1)	1,972	2.24	.71	.34	-.22
	5차 (중2)	1,969	2.23	.67	.31	.04
	6차 (중3)	1,994	2.25	.65	.29	.11
	7차 (고1)	1,933	2.25	.64	.16	-.10

아동기에 지각한 부모의 감독, 과잉간섭과 아동·청소년기 휴대전화 의존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척도가 4점 만점인 것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4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36$, $SD=.63$). 이는 아동들이 부모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M=2.40$, $SD=.68$). 휴대전화 의존도는 평균이 1차 시기에 1.63($SD=.56$)으로 중간값에 미치지 못했으나 점점 평균이 상승하여 7차 시기에는 평균이 2.25($SD=.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 시기부터 7차 시기까지는 평균의 변화가 거의 없어 청소년 초기에 형성된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이 청소년기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부모의 감독 및 과잉간섭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1.감독	1							
2.과잉간섭	-.02	1						
3.휴대전화 의존도 1차	-.16***	.29***	1					
4.휴대전화 의존도 2차	-.06*	.15***	.36***	1				
5.휴대전화 의존도 3차	-.01	.09***	.28***	.43***	1			
6.휴대전화 의존도 4차	-.02	.03	.16***	.26***	.40***	1		
7.휴대전화 의존도 5차	-.04	.02	.16***	.25***	.36***	.46***	1	
8.휴대전화 의존도 6차	-.04	.04	.19***	.18***	.31***	.38***	.52***	1
9.휴대전화 의존도 7차	-.05*	.07**	.14***	.18***	.24***	.33***	.40***	.48***

* $p<.05$. ** $p<.01$. *** $p<.001$.

아동기에 지각한 부모의 감독, 과잉간섭과 아동·청소년기 휴대전화 의존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차 연도의 부모 감독은 휴대전화 의존도 1, 2, 7차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1차 연도의 부모 과잉간섭의 경우에는 휴

대전화 의존도 1, 2, 3, 7차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가 감독하는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각할수록 휴대전화에 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아동이 부모가 과잉간섭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휴대전화 의존도의 잠재성장모형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였다. 우선적으로 1차 연도에서 7차 연도까지의 7개 시점에서 측정된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 모형, 이차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선형 모형은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이차함수 모형은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고 변화율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모형 비교 분석 결과(표 3), 이차함수 모형이 다른 두 모형보다 χ^2 값이 낮았으며, 적합도 지수들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차함수 모형을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궤적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3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의 잠재성장 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p	TLI	NFI	CFI	RMSEA
무변화	2854.08	32	<.001	.093	-.038	.000	.193
선형	1048.13	29	<.001	.638	.619	.625	.122
이차함수	345.35	25	<.001	.868	.874	.882	.073

최적 모형인 이차함수 모형에서 아동·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에 대한 추정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 초기치의 예측평균은 1.58, 변화율의 예측평균은 .29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중간 수준이었던

휴대전화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화율의 변화를 의미하는 이차항 계수의 예측평균은 -.03으로 이는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기술통계의 결과와 유사하게 휴대전화 의존도는 초등학교 시기 동안 점차 증가하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정점에 이르고 중학교 시기 동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고).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의 분산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궤적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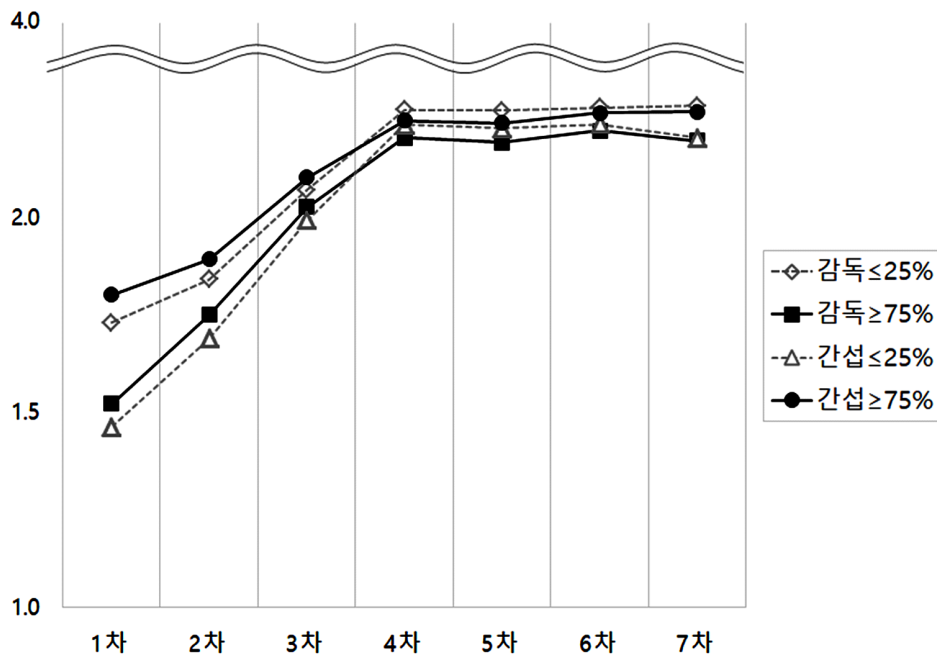


그림 1.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그래프 : 부모 양육방식 25퍼센타일 이하 집단과 75퍼센타일 이상 집단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율과 이차항의 공분산은 -.006($p < .001$)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증가 속도와 아동·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율의 변화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아동·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 이차함수모형

구분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
평균	1.584***	.290***	-.030***
분산	.123***	.048***	.001***
공분산	초기치 ↔ 변화율 = -.008(-.10) 초기치 ↔ 이차항 = -.001(-.13) 변화율 ↔ 이차항 = -.006(-.92)***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화 상관관계수임.

*** $p < .001$.

3.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와 변화율, 이차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 및 그림 2와 같다. 1차 연도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은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의 감독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는 더 낮으며,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곡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지만, 변화율의 변화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가 더 높았고,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곡선의 기울기는 더 완만하며, 변화율의 변화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부모의 과잉간섭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할수록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값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느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아동기 부모의 감독 및 과잉간섭이 낮은 경우(25퍼센타일 이하)와 높은 경우(75퍼센타일 이상)에 대한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감독 값이 높은 경우에는 초기값이 낮아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기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집단은 7년 동안 휴대전화 의존도가 일관성 있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5

아동·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궤적의 예측요인

예측요인(1차 연도)	휴대전화 의존도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
부모의 감독		-.159***	.114*	-.111*
부모의 과잉간섭		.532***	-.353***	.288***

$\chi^2(81)=529.083^{***}$, $TLI=.895$, $NFI=.906$, $CFI=.919$, $RMSEA=.048$

*** $p<.0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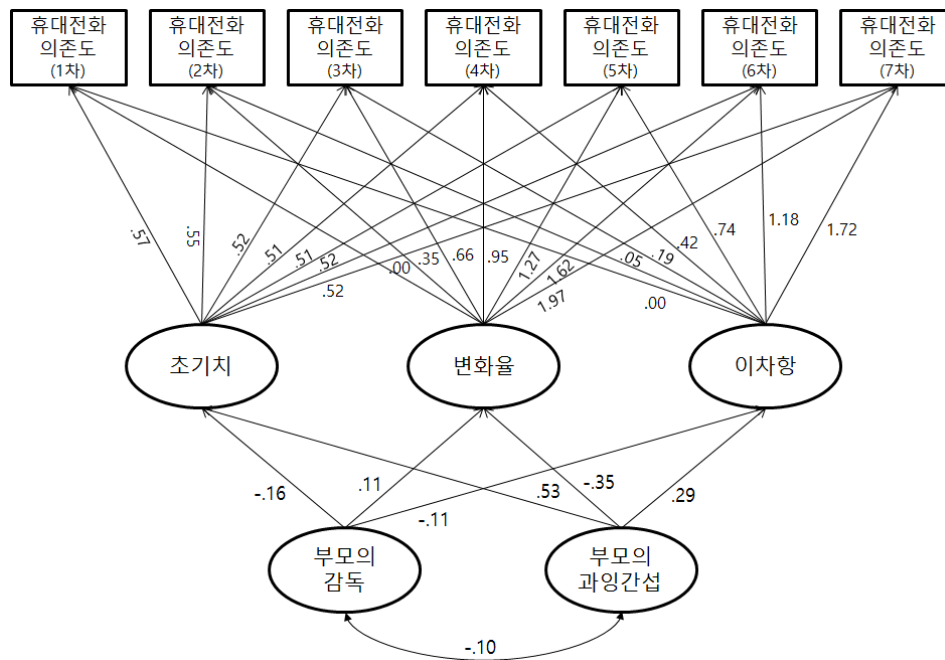


그림 2.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궤적과 예측요인에 대한 구조모형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궤적을 파악하고,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 양육방식이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7개 시점에서 측정한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궤적을 잠재성장모형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중학교 1학년 이후로는 그 수준이 유지되는 형태인 이차함수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들(김소영, 홍세희, 2014; 황고운 외, 2016)을 일부 지지해주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시기까지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휴대전화 사용 연령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77%로 나타나(김윤화, 2015),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이 시기에 휴대전화를 처음 소유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이 이루어지고, 초기 몰입으로 인한 사용시간 및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자아통제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김영민, 임영식, 2014), 자아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휴대전화를 소유했을 때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시점부터 휴대전화 의존도의 수준이 유지되는 것은 아동기에 형성된 휴대전화 사용 습관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기 습관 형성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준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또래 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잠재성장모형 검증을 통해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이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 수준이 같은 시점에 응답한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은 반면,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

면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감독이 휴대전화 의존 및 중독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 및 중독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지혜, 2012; 박주나, 전종설, 2013; 배승리, 2016; 임양미, 2014; 최태산, 김자경, 2016).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관심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자녀 생활에 대한 감독과 자녀의 안전 보장 및 올바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아동기 자녀는 이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아동기 자녀는 이를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 모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의 관심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대인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 양상과 관련되고, 이러한 특성이 휴대전화 사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인 감독은 자녀가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아동·청소년들은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휴대전화를 주로 가족 또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용도로 사용할 뿐,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이나 가상현실 속 관계에 집중하여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지는 않는다. 반면, 부모의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적 양육방식은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 자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에게 과잉간섭을 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부정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대전화에 쉽게 의존하게 된다. 게다가 이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나 채팅, 게임 등의 가상현실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관계 형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만족감 및 지지를 얻어 점차 휴대전화 의존에 빠지기 쉽게 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감독과 과잉간섭은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에 자녀가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경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휴대전화 의존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기에 자녀가 부모의 과잉간섭 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경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휴대전화 의존도 증가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는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에 대한 부모 감독과 과잉간섭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으면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가 낮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전 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은 경우 휴대전화 의존도는 느리게 증가하지만 휴대전화 의존도의 초기치가 높기 때문에 전 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게 나타게 된다. 이러한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속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차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동이 부모의 감독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 경우 휴대전화 의존도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증가속도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이 부모의 과잉간섭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한 경우 휴대전화 의존도는 느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증가속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부모의 감독 및 과잉간섭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알려준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다양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발달한 인지 능력으로 기기 사용 능력도 증가하여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점차 의존되기 쉽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증가하는지에는 아동기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감독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초창기에 부모의 걱정 수준의 통제 덕분에 휴대전화 의존이 낮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부모 감독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시점부터는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빠르게 증가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변화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과잉간섭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초창기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 학교생활 등에서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휴대전화 의존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 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다. 아동기 부모의 감독은 아동의 자기 통제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홍영수, 오선영, 2010), 이 때 형성된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이 휴대전화 의존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하지는 않도록 해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부모의 과잉간섭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에게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대전화에 더 많이 의존하게 만들게 되어 휴대전화 의존도

의 변화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양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통제력, 부모관련요인, 또래관련요인 등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횡단적 접근에서 벗어나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특정 시점에서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독립변인들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는 부모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또래 및 교사 관련 요인들이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며, 대부분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학교 내에서의 대인관계인 교사와 친구관계가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고, 나아가 부모 입장에서 관심이라는 의도 하에 행해지는 감독과 과잉간섭이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양상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서의 아동기 부모 양육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이는 향후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모 교육에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2), 1-17.
- 구현영, 김은정 (2015). 학령 초기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정도와 영향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21(1), 55-63.
- 김경은, 김필송, 민주연, 박수경, 신서인, 이지은, 정인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이화간호학회지**, 47, 27-42.
- 김대명, 조준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불안과 우울의 매개효과. **교육종합연구**, 13(2), 151-169.
- 김병년, 최홍일 (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1-25.
- 김소영, 홍세희 (2014). 중학생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추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3), 101-123.
- 김영민, 임영식 (2014).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자기통제력의 종단적 변화추이: 부모, 또래, 교사애착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5), 303-327.
- 김윤화 (2015).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지혜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개인요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용도를 매개로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3), 97-120.
- 김지혜 (2014).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휴대전화의존을 매개로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9, 41-61.
-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 요인과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29(4), 55-93.
- 노충래, 김소연 (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4), 87-114.
- 류미숙, 권미경 (2011). 휴대폰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차이 비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4(2), 76-83.
- 미래창조과학부 (2017).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http://msip.go.kr/SYNAP/skin/doc.html?fn=d7d8f8b7934f3c7bde83b5ad8eae473&rs=/SYNAP/sn3hcv/result/201707/>

에서 2017년 7월 19일 인출.

박민수 (2013).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스트레스가 고등학생의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정은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주나, 전종설 (2013). 부모의부모감독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청소년활동과 교사애착의 매개효과 분석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0, 127-160.

배승리 (2016). **아동의 휴대폰 의존도 및 자아탄력성과 부모양육태도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정민 (2013). 부모감독이 학교부적응과 청소년 비행경로에 미치는 매개효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인문사회과학연구**, 38, 139-169.

손은경, 최은영, 공마리아 (2016).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3(2), 439-457.

안혜원, 이재연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0(1), 77-88.

우수정 (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6), 583-590.

이시형, 김학수, 나은영, 이세용, 김선남, 배진한, 양지윤 (2002).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이어리, 이강이 (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 요인이 초등학교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이정민, 정혜원 (2016).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과 의존도 유형 분류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121-157.

임양미 (2014).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속성이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163-174.

임훈정 (2015). **부모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미경, 이은경 (2007). 초등학교생의 인터넷 사용욕구와 부모관련변인이 게임중독에

-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125-1138.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정옥분 (201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인호 (2012). 남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와 도덕성의 관계. **미래교육학연구**, 25(1), 95-130.
- 차은진, 김경호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79-108.
- 최선남, 최외선 (1995). 가족환경변인 및 아동기 부모-자녀 결합 형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3), 31-42.
- 최태산, 김자경 (2016). 부모의 과잉간섭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3), 393-414.
- 한국이동청소년패널 (2015). **KCYPS 초4 패널 제1-6차 조사 데이터**.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_View.do?menu_nix=qZc474Ak&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에서 2017년 8월 1일 인출.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은경, 이경남 (2006).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규범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4), 111-122.
- 홍영수, 오선영 (2010). 애착과 감독이 청소년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6(2), 319-336.
- 황고운, 조예진, 현명호 (2016). 초등학생의 또래애착과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19-239.
- Ball-Rokeach, S. J., & DeFleur, M. L.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 Blaszczynski, A., & Nower, L. (2002). A pathways model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Addiction*, 97(5), 487-499.
- Bögels, S. M., & Brechman-Toussaint, M. L. (2006). Family issues in child anxiety: Attachment, family functioning, parental rearing and beliefs. *Clinical Psychology*

- Review*, 26(7), 834-856.
- Bronfenbrenner, U. (1992).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pp. 187-249). London: Jessica Kingsley.
-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s, M. (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4), 649-657.
- Doh, H. S.,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 Gupta, R., & Derevensky, J. L. (2000). Adolescents with gambling problems: From research to treatment.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2-3), 315-342.
- Kim, Y. C., Jung, J. Y., Cohen, E. L., & Ball-Rokeach, S. J. (2004). Internet connectedness before and after September 11 2001. *New Media and Society*, 6(5), 611-631.
- KT 경제경영 연구소 (2016). 2016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DIGIECO 웹 사이트 <http://www.digieco.co.kr/KTFront/index.action>에서 2017년 7월 19일 인출.
- Li, X., Stanton, B., & Feigelman, S. (2000). Impact of perceived parental monitoring on adolescent risk behavior over 4 yea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1), 49-56.
- Maisch, D. (2003). Children and mobile phones. Is there a health risk? The case for extra precautions. *Journal of the Australasian College of Nutri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2(2), 3-8.
- Nelsen, J., & Erwin, C. (2000). *Parents who love too much: How good parents can learn to love more wisely and develop children of character*. CA: Prima Publishing.
- Oksman, V., & Turtiainen, J. (2004). Mobile communication as a social stage: Meanings of mobile communication in everyday life among teenagers in

- Finland. *New Media and Society*, 6(3), 319-339.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NY: Grune & Stratton.
- Sarwar, M., & Soomro, T. R. (2013). Impact of smartphone's on society. *European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98(2), 216-226.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 Shaffer, H. J., & Bethune, W. (2000). Introduction: Youth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2), 113-114.
- Symonds, P. M. (1939).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 Tai, Z., & Sun, T. (2007). Media dependencies in a changing media environment: The case of the 2003 SARS epidemic in China. *New Media and Society*, 9(6), 987-1009.
- Vandell, D. L., Belsky, J., Burchinal, M., Steinberg, L., & Vandergrift, N. (2010). Do effects of early child care extend to age 15 years?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81(3), 737-756.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3), 899-902.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intrusiveness on addictive use of cellular phones: A seven-wave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Kim, Kyungmin* · Jo, Eunyung* · Song, Ji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ajectories of the addictive use of cellular phones by adolescents and to identify th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intrusiveness on their addictive use of cellular phones from a longitudinal perspective. Data harvested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The data from 2,378 students in the period between their 4th and 10th grades were analyzed. We utilized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for the purposes of our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evels of addictive use of cellular phones increased steadily from the 4th to the 7th grade. Significant covariates were found on the slope and quadratic parameters. Second, parental monitoring and intrusiveness significantly predicts adolescents' initial levels of addictive use of cellular phones (intercepts), their rates of increase in levels of what evolves into an addictive use of cellular phones (slope) as well as quadratic parameters.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for the notion that effective parenting is an important factor in preventing the addictive use of cellular phones by adolescents.

Key Words: addictive use of cellular phones, parental monitoring, parental intrusiveness, latent growth model

투고일: 2017. 9. 1, 심사일: 2017. 11. 20, 심사완료일: 2017. 11. 30

* Center for human ecology research, Korea University